보도시점 2026. 11. 10.(화) 배포시점 배포 2026. 11. 10.(화) 13:30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나서

- 해외 방송 관계사와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5개국 7개 방송사 참여 -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해외 방송 관계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서울에서 지역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와 역사,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해외 방송 관계사 등과 유통 및 공동제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 20개 지역방송사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 7개 방송 관계사*가 참여했다.

* 중국(Mango TV), 일본(Tokyo DOCS), 대만(AVJET International Media), 베트남(SCTV, Vietba Group JSC, VTV cab), 인도네시아(PT. Inter Solusingdo Film)

이날 행사는 지역방송사 우수 콘텐츠 상영회, 해외 방송 관계사별 교류협력 사항 발표, 유통 및 공동제작 협의를 위한 사업 미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 미팅에서는 지역방송사와 해외 방송 관계사가 각자 콘텐츠 및 사업 수요를 공유하고, 유통 및 공동제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향후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지역방송의 우수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지역방송이 보유한 지역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석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원 (02-2110-14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두의 미디어 주권,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